

速記界

第 20 號



社團 大韓速記協會
法人

3	<卷頭言> 受任 한해를 돌아보며	理事長 金仁寧
5	繼 特輯	高在瑋
6	내가 본 速記人	朱文玉
8	速記士의 企業進出展望과 問題點에 대한 小考	柳舜台
11	* 第9回 全國速記人體育大會記	河良培
15	高麗速記의 再出帆	安廷根
17	會 》 入選所感(國展)	副會長 鄭源道
21	員 》 40고개에서	金永善
23	文 》 첫 차	柳成秀
25	藝 》 詩 / 冬栢亭思	具寬謨
26	◎ 用語解說	研究委員會
28	소식란	涉外部
30	第12回 定期總會	
34	協會沿革 및 主要日誌	總務部
40	繼 資格審査委員會規程	
43	會務報告	總務部
14	第16回 速記士資格檢定試驗合格者名單	
16	速記料金案內	
20	名言산책	
24	速記에 관한 相談을 받습니다	
27	會費納付案內	
29	原稿募集	
44	編輯後記	



《卷頭書》

受任 한해를 돌아보며

理事長 金 仁 寧

戊午年을 보내고 希望에찬 己未年을 맞이하면서 開催된 第12回 定期總會에서 會員 여러분들의 決議에 따라 理事長이라는 重責을 맡은지 벌써 한해를 보내는 瞬間입니다.



1955年 11月 13日에 全國 速記人들의 結束을 다짐하면서 發尼된 우리 協會는 그동안 會員 여러분께서 「協會를 위함이 곧 爲國함」이라는 決意를 가지고 한명어리로 뭉쳐 積極 參與함으로써 어느 團體 못지 않게 크게 內實을 期하고 굳건한 基盤을 다져왔다고 다 함께 自負하고 싶습니다.

한해를 보내면서 돌아켜 볼 때 우리에게는 여러가지 試鍊이 있었습니다. 그間 우리들이 恒常 부르짖던 「速記의 底邊擴大」의 一環으로서 地方에서는 近來에 드물게 멀리 大邱에서 速記人이 아닌 한 大學生에 의하여 國·英語速記士養成 私設機關이 設立되어 運營되기 始作했습니다. 마는 國語速記는 2個月도 못돼 脈이 끊어지고 英語速記만이 그 命脈을 維持하고

있는 것과 아울러 草創期부터 參與했던 盧英民會員이 協會 有史以來 前無後無하게 訣別, 別價의 協會를 設立하였음은 그 어느 때 보다도 分立이 아닌 單一 協會下에 速記人의 集結精進이 切實히 要求되는 時機에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서 한편 理事長으로서의 自責感을 痛感하는 바입니다.

한편 이러한 狀況속에서도 지난 9月初부터는 서울에서 우리 會員의 손에 의하여 高麗法式 養成機關이 다시 復活된 것은 甚多幸한 일로 여겨지는 바입니다. 마는 創立以來 온갖 試鍊과 苦楚속에서 다져진 이 協會를 名實共히 國內 唯一의 法人體로 躍進시키기 위하여는 지난날과 같이 「量的으로 擴大시키는 構成體로서의 團體」보다는 「質的으로 向上되고 다음어진 組織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目的이 速記人의 社會的 地位向上 뿐만 아니라 나아가 「記錄으로써 國家와 社會에 貢獻함」에 있는 즉슨 外的으로는 아직도 一角에 도사리고 있는 速記人間의 相互不信과 反目的 風潮를 一掃하고 內的으로는 各自의 技倆 研磨는 물론 實質을 向上시켜 맡은 바 職

務遂行에 「能率의 極大化」를 꾀하는 마음
가짐이 절실히 要求되는 때라고 생각합니
다.

이제 한해 동안의 말은 바 責務를 마무
리지면서 여러 가지 自省과 함께 다시
맞는 새해에는 주어지는 與件에서 協會를
더욱 效率性 있게 運營할 생각입니다.

우리 協會의 事業內容은 創立以來 아직
까지도 別로 變更이 없이 踏襲되고 있음
니다라는 다음해의 主要事業으로서는

첫째 協會 事業의 核心이 되는 速記無
料講習은 量的으로는 前年度의 水準을 維
持하면서 短期講習用教材를 더욱 改良된
記法으로 補完하여 講習內容을 質적으로
向上시켜 나갈 것이며

둘째 資格檢定은 改正된 規程에 따라

嚴正하게 施行함으로써 權威性을 계속 維
持할 것이며

셋째 研究事業은 우리의 速記術向上을
目的한은 물론 協會의 無料講習을 위한
體系的인 面에서 계속할 것이며

네째 「速記界」發刊 역시 더욱 알찬 內
容을 담는데 盡力할 것이며

다섯째 會員의 相互親睦과 體力向上을
위한 體育大會는 勤儉節約의 氣風위에서
名實共히 全國 速記人의 相互親睦과 友誼
를 다지는 大會가 되도록 努力할 생각입
니다.

앞으로 1年間 以上과 같은 協會의 事業
이 健全하고도 體系있게 成就될 수 있도
록 會員여러분의 보다 積極인 參與와
제책질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내가 본 速記人

高 在 璜



人類의 歷史를 돌이켜 훑어보면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이를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 왔다. 예를 들어 政治人이나 어떤 사건의 主役들이 前者라면

이를 可能한 限 公平無私하게 記錄·保存하는 史官이나 오늘날의 新聞記者가 後者라 할 수 있을 것이다. 速記士란 하더라도 後者の 範疇에 屬하는 것이라고 나 나름의 解釋을 가지고 있다.

歷史의 主役들이 陽地에서 일하는 것이라면 이의 記錄人은 陰地에서 묵묵히 일하는 「그물」이라고 보아 無妨하다.

産業社會의 발전에 따라 專門職業의 分化로 오늘날 수많은 職種이 生成되고 있지만 나는 이 가운데에서도 速記人이야말로 우수한 頭腦들이 모인 職業中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다. 一般人은 理解할 수 없는 갖가지 方術과 역량이 다른 여러 사람의 말을 速記한다는 것도 難題이려니와 이를 다시 文字로 옮겨 쓰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상당한 素養을 갖추지 않고는 政治·經濟·

社會·文化등 廣範한 論及을 그대로 정확히 記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言語의 速度와 一致하게 記錄한다는 것이 一般文字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創案된 이 速記는 아주 오랜 歷史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1909年 朴如日氏가 朝鮮速記法을 創案한 것이 始初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後 日帝의 우리 語文 抹殺政策으로 속기도 발전이 있을 수 없었을 터이고 1945年 解放後에야 비로소 速記가 實用期 成長期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憲政史의 山證人이라고 할 수 있는 國會會議錄이 速記士에 의해서 완전히 記錄保存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귀중한 史料인 만큼 더욱 速記人들에게 矜持가 될 것이다.

이와같은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또 社會의 公益에 종사하는 速記人이야말로 말로 부칠한 使務을 가지고 스스로의 資質向上에 盡力해야 할 것이며, 우리 社會에서도 專門職業人인 이들의 발전에 寄與되도록 소홀함이 없어야 될 줄 안다.

(國會 保社委 專門委員)

내가 본 速記人

朱 文 玉

大地를 볼때우면 盛夏가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피부에 부딪히는 공기의 촉감에서 아니 한일 두일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가을이 다가 오누나 하였더니 찾아온 손님은 뜻밖에도 速記에 관하여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이 사람에게 “내가본 速記人”이라는 원고 청탁이었다.

우선 먼저 여러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에게 귀중한 기회를 주신 速記協會 여러분에게 깊은 感謝를 드리는 바이다.

科學文明의 發達과 함께 地球上에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表現들을 한다. 바로 그것은 교통, 통신수단의 發達로 한 나라가 1日生活圈에 속한다는 이야기는 옛말이 되고 이제는 全世界가 하루의 生活圈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주변이 하루가 멀다하고 急變하는 상황속에서 실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같은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달라야 한다는데는 별다른 異論이 없을 것이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내가 본 速記人”도 어느 측면에서 어떤 모습을 언급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이 글을 계속하기로 하겠다.

나 혼자서의 생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速記同友人과 접촉이나 對話의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비교적 速記를 약간은 이해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점으로 인하여 이 글의 請託을 받게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速記人이라고 하니까 어던지 모르게 거리감이 있는 것같으나 이는 분명히 速記의 專門인 技術業務를 擔當하고 있는 專門家를 지칭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한마디로 해서 말을 딱르게 記錄하는 사람이라는 表現일 것이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專門인이 되기까지는 어떤 分野이거나 비슷한 過程을 걸어야 하는 共通點을 갖고 있다고 하겠으나 한 사람의 速記인이 되기까지는 남모르게 흐르는 피눈물로 얼룩진 자욱이 있기에 도중에서 頂上挑戰을 포기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한편 최후까지 挑戰에 성공한 극소수의 勝利者들의 겪은 過程을 알게 된 후부터는 내 자신 그분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速記란 과연 얼마나 빨리 記錄한다는 것일까 1分間に 350字 内外의 다른 사람의 말을 記錄해야 하면서 速記는 빠르게 기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迅速·正確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귀로 잘 들어야 하고 눈으로 잘 보아야 하고 머릿에서 判斷을 해야 하고 손으로 써야 하는 複合的인 同時作用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어떠한 速記란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最善의 노력을 다하지 않고는 不可能한 뿐 아니라 참고 견뎌야 하는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 자기의 감정이나, 행동을 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理性과 광범한 知識과 더불어 훌륭한 人格을 갖추어야 하는 바 이러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을 速記인이라 부르고 싶다.

速記인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화려하게 보이는 分野는 아니더라도 특히 國政을 다루는 國會에서 歷史의 記錄을 擔當하고 있다는 自負心과 더불어 各分野에서 速記人的인 활동은 國家發展에 크게

功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 뿐이라! 그 분들의 協同하고 團結된 相扶相助의 정신은 보는 이로 하여금 부러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나는 그곳에서 師弟之間의 情, 先後輩之間의 情, 同僚之間의 友情 속에서 尊敬과 信賴, 사랑의 참모습과 함께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넘쳐흐르는 감정 속에 따뜻하고 포근한 人生의 광장을 찾을 수가 있었다.

해마다 벌이는 速記同友人들의 대잔치인 體育大會를 가보지 않고서야 어찌 그 멋과 맛을 알 수 있으리.

이 자리를 빌어 每年 그 큰 잔치에 參席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여러분에게 감사론 드리고저 한다.

그대는 速記人……人間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發展可能性에 挑戰한 勝利者, 人情이 넘쳐흐르는 人格者여! 그대들의 앞날에 뜻이 이루어지고 萬福이 가득하기를 祈願하며 이 글을 맺고자 한다.

(國會公務員研修院長)

速記士の 企業進出展望과 問題點에 대한 小考

柳 舜 台

Ⅰ 企業에서의 速記業務 必要性

오늘날 企業은 날로 大型化 내지 복잡·전문화 되어감에 따라 企業主人 經營人이 조차 전체를 직접 觀望하던 과거 零細企業때와는 달리 權한위임특의 확대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영세성을 띤 企業을 經營할 때에는 企業主와 종업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함께 고생하고 성실하게만 일하면 企業을 성장시킬 수 있었지만 종업원 수가 늘고 財務構造가 신장하여 大企業化 하면 그리하지 못하다. 아울러 經營자와 종업원간의 직접적인 대화의 정도 좁아지고 명령이나 지시 또한 일정양식의 文書로써 전달·수령된다.

이때 명령·지시 사항은 당사자간에 직접 전달하거나 수령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으나 中間管理者라는 중간단계를 거침으로써 잘못 전달·수령되는 경우가 생기기 쉽다.

가령 經營者는 <A>라는 사항을 중간관리자에게 지시했는데 그 지시사항이 몇 단계를 거쳐 현장종업원에게 최종적으로 도달했을 때는 <A>가 아닌 라는 형태

로 탈바꿈해 버린 예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것은 經營자와 현장종업원간의 架橋 역할을 하고 있는 中間管理者가 잘못 들었거나 잘 들었더라도 명령·지시사항을 그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의 명령·지시 전달 책임자나 文書作成者는 풍부하고도 정확하게 發言者의 발언을 청취하고 기억하여 바르게 文書化 해서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엔 어쩔수없이 재확인, 작성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운 시간적 「로스」를 가져오게 된다. 반면에 들긴 잘 들었는데 文書化 할 때 기억이 회미하여 歪曲된 전달 상대로 현장종업원에게 전해지면 業務의 집행과정에서 뿐 아니라 결과에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과오를 빚기 마련이다.

또 오늘날의 企業成敗는 각종 자료수집의 신속·정확·풍부함 여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늦은 情報, 불투명한 資料를 바탕으로 한 企業經營은 반드시 虛點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大文豪의 書庫에 책이 많고 有名 「메스컴」 기관일수록 풍부한 資料室이

갖춰져 있듯이 成長企業·優良企業도 마찬가지로 풍부한 각종 資料를 확보하고 있는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자료에는 여러가지 類型이 있겠으나 株主總會를 비롯하여 月例幹部會議 또는 部署別會議 등에서 오가는 대화도 그중의 하나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각종 회의에서는 社運을 가름할 정도의 중대한 企業經營의 방향이 논의, 결정되기도 하는가 하면 社員 상호간의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 회의석상을 떠나 며칠만 경과하고 나면 그 내용을 잊어 버리거나 정확하게 기억하기가 어렵스 된다. 그렇다고 회의진행과정을 녹음해 두거나 國會에서 작성하는 速記錄처럼 會議錄을 작성해 두지 않는한 발언자의 발언 내용을 그대로 되새겨 본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심지어는 발언자 자신까지도 자기가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기억할 수는 없을 것이다.

會議에 직접 참여한 사람도 그러한데 참여치 않은 사람은 더더구나 회의내용을 알길이 없다. 이때금 회의의 종류에 따라서는 많은 시간과 엄청난 비용이 들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석상을 떠나 시간이 경과하면 잊어버린다고 할 때 그것은 原價面에서 큰 「로스」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諸觀點에서 企業은 각종 會議錄을 남겨 두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들춰 볼 수 있게끔 해둘 필요가 있다.

다음 요즈음 웬만한 大企業이라면 대개 「社報」를 만들고 있다. 이 「社報」는 종업원들의 資質向上과 社內동정 건달의 매개체 역할을 할뿐 아니라 內外弘報用으로도

크게 이용된다.

이 「社報」 발행의 담당자들은 때때로 最高經營者나 기타 경영진을 대신하여 각종 연설문을 草案,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 때 代筆者는 발표자로부터 미리 내용의 줄거리를 듣고 작성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企業經營에 있어서 最高經營者 내지 上司로부터 내려지는 명령·지시 사항의 「메모」와 각종 회의록 작성의 필요성 및 弘報業務 담당자의 역할을 살펴 보면 한결같이 速記術이 요청되고 실제로 관계 담당자들이 그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아울러 最高經營者의 의사를 전달하고 보좌하는 비서업무 종사자도 마찬가지이다.

● 速記士進出의 展望

여기서 會議錄 작성 이외의 기타업무에 적용될 速記는 업무 참조 정도에 불과하므로 專門速記士의 자질을 요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발언요지를 빠짐없이 「메모」할 정도면 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企業에서의 速記術의 보편화 또는 大衆化를 위한 速記人(혹은 大韓速記協會)의 활동전개는 감사진만 확보된다면 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요즈음 웬만한 上場會社 정도의 규모를 갖춘 기업들은 대개 QC운동 내지 TQC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社員資質向上을 위한 특별시간이 정기적으로 부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本稿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추기보급문제가 아니라 速記士의 기업진출 가능성과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있는 것이다.

9월 현재 우리 나라 企業群은 大企業이 355個社, 中小企業이 2萬餘個社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서 중소기업은 차지하고라도 대기업에서만 速記士 1명씩을 채용한다 해도 355명의 속기사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筆者가 지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우리나라 上場會社 20개사의 부장급 간부들 30명을 대상으로 「企業內 速記士 常住의 必要性」 조사를 해 본 결과 「매우 필요하다」가 5명, 「필요하다」가 15명, 「필요없다」가 3명, 「필요하지만 資質이 문제다」가 7명이라는 수치를 보였다.

물론 이 조사가 公認機關의 공식적인 집계가 아니고 개별 「인터뷰」를 통해 얻어진 것이긴 하지만 企業에서의 速記士의 필요성이 인정된 것만은 틀림없다.

問題點

그럼에도 불구하고 專門速記士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매우 드물고, 간혹 전문속기사를 채용했다손 치더라도 速記士로서 채용한 것이 아니라 他業務를 맡아 보면서 속기업무를 겸직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기업의 速記士에 대한 인식부족과 학력위주의 入社試驗制度 때문이다. 그 중에서 前者의 이유는 速記人들의 弘報여하에 따라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겠지만 後者의 이유는 쉽사리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즉, 速記術을 활용할 수 있는 직책의 사원모집 대상자는 大企業은 물론이고 中小企業에 이르기까지 大卒者를 요하고 있

는 실정이다.

前述한 기업내 속기사 상주의 필요성조사에서 나타난 「필요하지만 자질이 문제다」와 「필요없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내세운 이유는 한결같이 기업 會議錄이란 발언자의 발언을 그대로 표현하는데에 意義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듣고 이해하여 체계적인 형식으로 압축문장화 하는데에 있으므로 그 정도의 수준을 갖추려면 大卒 정도의 학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한가지 더 첨부한다면, 아무리 언변이 좋은 最高經營者 혹은 管理者라 하더라도 발언상태 그대로 번문해 놓으면 앞뒤 문장이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企業 會議錄은 누가 어떤 말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는 얼마만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資料 역할을 했느냐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말이다.

이같은 연유로 해서 企業은 속기사를 쓴다면 大卒者를 요구하고 있으나 企業 스스로 速記士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만큼 속기사의 기업진출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企業의 多國籍化 내지 大型化에 따라 그만큼 속기사의 기업진출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문제는 「속기사의 자질 云云……」에 있으므로 大學生에 대한 속기사 양성이 시급할 뿐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사진의 배출이 앞서야 하고 이 일이 곧 大韓速記協會를 비롯하여 速記人 및 그 양성기관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韓國生產性本部)



第9回 全國速記人體育大會記

河 良 培

☆ 大會經過 ☆

1. 日時 : 1979년 6월 3일 (日)
2. 場所 : 한국도로공사구장 (관교)
3. 參加人員 : 245명
4. 경기내용
 - (1) 축 구
청룡팀 (편집 1, 담당관실, 속기 1·3·5 담당)
맹호팀 (편집 2, 속기 2·4·6담당)
사자팀 (외부회원)
백마팀 (내빈)
 - (2) 아동과자따먹기
 - (3) 아동축구
 - (4) 내빈뷰브릴레이
 - (5) 미혼남녀기차릴레이
 - (6) 부부 2인 3자
 - (7) 여회원피구
청룡팀, 맹호팀
 - (8) 아동장애물경기
 - (9) 남녀회원공물리기
 - (10) 부모자녀경기
 - (11) 만물상
 - (12) 아동 광주리 채우기

5. 對戰結果

- 우 승 : 청룡팀
준우승 : 사자팀
공동 3위 : 백마팀 · 맹호팀
- 個人賞部門
최우수상 : 고석광 회원
인기상 : 이강원 회원

6. 本大會를 위한 贊助

- 〈金一封 喜捨〉
金龍泰會長 國會事務處
維政會院內總務室 共和黨院內 總務室
建設委 李永根委員長
財務委 張承台委員長
經科委 崔載九委員長
保社委 威明洙委員長
李慈憲議員 尹國老議員 金振晚議員
朴定洙議員 天豐 金炳九社長
東邦 · 新世界 · 大邱速記學院
光明早起會 盧承傑氏 姜守一氏
崔孝燮氏 金鳳甲氏 金鍾壽會員
崔秉秀會員 鄭明吉會員 李相鎭會員
李龍洙會員 양동준會員
- 〈記念品 喜捨〉
李哲熙議員 李仁根議員 安國產業
朱文玉研修院長 오준근會員

고대중會員 이운화會員 이영열會員
전재곤會員
國會速記士養成所同門會

☆ 參 觀 記 ☆

밤새 내리던 비가 아침에야 겨우 멎었다. 작년 대회에 억수같이 퍼붓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다행이다싶게 비가 그친 가운데 태평로를 출발했다. 차가 都心을 빠져 나오고城南입구에 이르기까지 빗발은 간간히 車窓을 대각선으로 때려 일말의 의구를 일게 했고 하늘은 내내 푸연 회색 빛이었다.

이윽고 初夏의 문턱에서 제법 樹林이 무성한 野山 중턱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에 도착하자 파아란 하늘이 열려 회원들은 일시에 환호를 올렸다.

公社側에서 「조국번영과 민족증흥을 위하여 다듬어진 고속도로를 보살피고저 1973년 12월 30일 이곳에 터를 잡아 道城 峯이라 이름」한 곳인데 본관 3층건물이 자리 잡고 그 후면에 잘 가꾸어진 잔디球場이 녹색「카펫」처럼 펼쳐 있었다.

끝이 어행된 개최식에서 協會 金龍泰會長은 鄭源道副會長이 대독한 大會長人 事를 통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을 살피볼때 激變하는 國際情勢와 南北韓의 銳角的인 對立狀態 및 成長속의 高「인플레이」現狀은 全國民으로 하여금 忍耐포써 다시금 國難克服의 슬기와 단결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記錄報國의 一翼을 담당한 우리 속기인들도 이에 발맞추어 우리들 주변의 不條理와 낭비적인 要素를 과감히 剔抉하고 內實을 다져 總和隊列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이 엄숙한 時代的 要請을 直視, 더욱 자세를 가다듬음은 물론 速記

協會의 밝은 앞날을 위해 奮發해야 할 것입니다」라 했으며 이어서 姜駿遠指導委員은 祝辭에서 「人類가 존재하는 한 速記가 존재한다. 우리는 速記人的 矜持로 삶의 보람을 느끼자」고 했다. 다음은 金仁寧理事長의 경과보고에 이어 崔錫模 前理事長에게 공로패 수여가 있었다.

이날 첫對戰은 맹호팀 對 사자팀의 측구예선이었는데 시작하지 불과 4분만에 사자가 한 「골」을 넣자 어린용원단은 「우리팀이 이겼다고 전화왔어요」라는 노래로 아빠팀을 응원하기에 신명이 났다. 이어 후반에 맹호가 失點을 만회하자 결국 「페널티·킥」으로 승부를 가린 끝에 사자팀이 이겼다.

아동축구, 부부 2인 3자, 여회원피구등 다양한 「게임」중에도 골 잡힐듯 잡히지 않는 과자를 따먹으며 안간힘을 쓰는 아동과자따먹기에서 부모들은 같이 웃고 안타까워 했으며 어린이가 「스폰지」방석을 징검다리로 하여 장충장충 뛰어 반환점을 돌아오는 부모자녀경기에서는 엄마아빠가 맘을 뻔뻔 흘리며 열심히 방석을 움켜주는 정경이 못내 흐뭇하기만 했다.

또한 여회원 「퍼레이드」같은 만물상경기에서 쪽지의 주문사항은 “거북선”담배가 저오기, 플라마시, 금배안경가져오기 등 각가지였는데 김화자회원파 한組가 된 조영창회원이 고운 韓服으로 女裝을 하고 뿔뿔은 모두 배꼽을 잡고 웃을 수밖에…… 아동광주리체육기에서는 청·홍양팀으로 나누어 장대끝에 매달린 광주리에 오자미를 저막다 던져넣는데 「우리들의 차돌이」가 울려퍼지고 오자미는 5色꽃보라처럼 날리고 다시 집어넣은 끝에 자기팀이 몇개나 넣었나 결과물 헤아리는

하나 둘 셋…… 합창소리는 우렁찬 합성이 되어 메아리치고 있었다.

우승전의 향방을 가름할 즉구결승전은 청룡對 사자팀의 대결로서 전반을 混戰 속에 승부를 가리지 못하다가 후반 10분을 경과하자 청룡의 고석광선수가「미들 필드」오른쪽에서 질풍같이 달려들어 귀중한 한「골」을 성공시킴으로서 大勢를 결정지었다.

경기가 모두 끝나자 申世華회원의 先導로 모든 회원, 부모와 자녀가 손을 손을 맞잡고 둥근 원을 그리며 넓은 운동장을 돌았을 때 속기로서 맺어진 인연이 서로 잡은 손 맥박을 통해 전달되어 昇華되었으리라 싶고 이때에 엠프에서는 계속「마린 보이」「마징가·제트」등 만화영화 주제가가 흘러나와 행진을 더욱 흥겹게 맞

추어 주었다.

施賞에 이어서 고석광회원의 사회로 여흥이 진행되었는데 먼저 황인하회원 가족의「서울의 찬가」로 부터 시작되어 왜강회회원 두자녀(혜원·재준)의「용팔이송」에 이르러 우스꽝스러운 율동을 섞어가며 부르는 통에 場內들 웃음바다로 만들며「양쪽」을 요청받았다. 또한 김난희회원이 자칭「無題」라는 노래를 호소력있게 불러 여흥의 절정을 이루고 點火와 같은「양쪽」소리에「최진사네 세째딸」로 화답했고 골장식은 최요섭회원의「삼천리강산」에 속기사가 왕이다라는 自畫自讚(?) 비슷한 선창에 모든 회원의 후창으로 매듭지었다.

이날 중일 산기슭에서는 머꾸기우는 소리가 은은하고 가까이는 공작이며 칠면



(아동 팽주리 채우기 광경)

조, 금계, 원앙, 오골계 등이 있는 鳥類
飼育舍에서 이따금 제각기 다부어 과시하
는 高聲이 들리고 길은 잔디를 보호하려
는 듯 고목으로 보드 「불턱」을 깔아 놓았
으며 게다가 道城池에는 임어가 한가롭게

노는 숲속의 작은 벌치지같은 곳에서 제
반행사를 마치고 주변을 정리하자 어느듯
때도 기울어 밀려드는 파도같은 惜別의
情을 뒤로 한채 歸路를 재촉했다.

(國會速記課)

**第16回 국어
영어 速記士資格檢定試驗**

日 時 : 1979. 5. 13
場 所 : 國會速記士養成所

— 合格者名單 —

◎ 國語速記

- 1級 : 안기철 · 성경희 · 문금옥 · 허광현 · 강진남 · 이춘근 · 신영애 (計 7名)
- 2級 : 김애경 · 송기자 · 최경옥 · 김영선 (計 4名)
- 4級 : 김택주 · 서일순 · 김정희 · 이연주 · 김종만 · 김경애 · 이대숙 · 박은미 · 신한섭 (計 9名)
- 5級 : 정유환 · 김정순 · 유혜숙 (計 3名)
- 6級 : 김영덕 · 이철순 · 김영미 · 조미자 · 김미정 · 성영희 · 심규임 · 김선옥 · 박영배 · 강봉수 · 박정자 · 박희영 · 김길지 · 윤배근 · 권세창 · 임성춘 (計 16名)
- 7級 : 임도진 · 백선숙 · 최태영 · 이규창 (計 4名)
- 8級 : 최상희 · 이길화 · 유용환 (計 3名)

◎ 英語速記

- 2級 : 송원미 · 김두은 (計 2名)
- 3級 : 김희정 · 김경배 · 이부영 (計 3名)
- 4級 : 린다 제이 산토스 · 주경숙 (計 2名)

高麗速記의 再出帆

安 廷 根

우리나라도 이제 1980年代를 눈앞에 두고 國家經濟의 發達과 더불어 어느 나라에 못지않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랜동안의 日帝 압제하에서 벗어나 民主共和國으로 樹立된 지 30餘년이 흘렀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名實共히 우리의 議會政治와 함께 速記術의 발달과 效用도 커져왔다고 생각됩니다.

돌이켜 보면 高麗式 速記가 議會史上 最初인 立法議院時代부터 1948년 大韓民國 수립과 동시에 國會가 成立되어 議事進行을 記錄으로 담기위한 역할을 시작하지 어언 30餘星霜을 보내면서 成年된 速記로 發展되어 왔으나 많은 試鍊을 겪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1950年代의 戰亂속에서도 피난당시 釜山 臨時首都에서, 또한 서울 서북후 골장 서울에서 각각 「高麗速記學院」을 開院하여 速記文化普及과 速記士養成을 하던 中學院의 經營난과 여러가지 事情으로 1970年代에 들어 서면서 부득이 중단되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逆境속에서 한동안 활발치 못했던 速記보급사업이 이제 “하변 된다”는 自信感과 “無限한 가능성”을 안고서 再出帆의



뜻을 달았으니 감격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979년 9월 1일 오후 2시에 시내 종로 2가 長安빌딩 4층에 자리 잡고 있는 高麗速記學院에서 고려속기의 새受講生 11名の 開講式이 열렸으니 創案者되시는 金天漢, 金星漢 두 선생님을 비롯하여 協會 金仁寧理事長님과 同門先輩 10數名이 참석한 가운데 高麗速記의 재출발을 祝賀하는 모임을 조촐하게 가졌습니다.

이자리에서 金理事長님은 祝賀의 말씀 가운데 “어려운 條件下에서 다시 고려속기가 햇빛을 보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하며 高麗式 속기의 막내인 安선생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要旨의 말씀이 계셨고 創案者 선생님과 여러 선배 동문들의 뜻 있는 말씀과 아울러 金宗煥 同門(初代협회 이사장)께서는 “지금은 速記실무를 떠난 지 벌써 數年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붙어 있는 어떤 마력(?) 때문에 萬事물 제쳐놓고 달려왔다” 하면서 화분과 더불어 祝辭속에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음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當日의 모임에서 “速記講習”도 어려우나 배운 學生들의 進路指導가 더 큰 課題라고 말씀들을 하시면서 “앞으로는 진로 개척을 위해서 協會와 學院이 하나가 되어 매진해야 되겠다”는 당부도 있었음

니다.

初代국회때의 議員들의 1分間 발인속도와 오늘날 議員들의 발인속도는 그야말로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 200자 대에서 300자를 넘어 발인자에 따라서는 400자를 넘는 超高速발인 議員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速記法式에 따라 心血을 경주하여 법식개선과 아울러 文法의 再整備, 略法, 略字의 연구가 꾸준히 계속되어 왔으나 아직도 未備한 점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물론 고려식 속기에도 「高麗速記研究會」(회장, 金星漢)를 두어 法式改良研究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記錄文化時代의 旗手”로서 속기사의 역할이 크나함은 再言할 필요도 없거니와 그야말로 “言語 速記文化의 役軍”으로서 議政史 기록을 하는데 속기사의 實務가 막중함을 깨닫고 유능한 속기사 배출에 盡力하고자 다짐하면서 協會와 有關人士들의 指導鞭撻이 있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끝으로 보장것 없고 速記界의 年輪도 짧은 본인에게 엄청난고 영광된 使命感을 갖게 해준 속기계의 모든 분들에게 진정으로 감사드리며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이 참된 본분이라 생각합니다.

(高麗速記學院)

속 기 요 금 안 내

1979. 1. 1 시행

속 기 기 본 료	1 시 간 당	50,000원
녹 음 재 생	〃	60,000원
건 문 분 야	〃	70,000원
외 국 어 속 기	〃	80,000원

- 1시간 미만의 기록시간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총속기요금의 40% 이상을 계약금으로 받은후 번문에 착수한다.
- 지방출장시에는 상기요금 외에 일체의 비용을 의뢰자가 부담한다.
- 요지작성료는 상기 요금 외에 매 시간당 15,000원씩 가산한다.
- 우리는 들은대로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아니한다.
- 우리는 번문한 원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우리는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 이 요금표의 적용은 1급 및 2급 속기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 한다.

사단법인 大韓速記協會

入 選 所 感



農 隱 鄭 源 道

사람에게는各自 하고싶은 마음이 열리는 방향과 特有한 성질이나 인품에 따라 各기 다양한 趣味가 나타나게 된다. 그 趣味를 잘 살리면 人格을 가다듬게 함과 아울러 社會生活에 있어 和睦하고 명량한 분위기를 이루어 주어 能率을 가져 올 수 있다.

그 趣味는 各자의 職業으로 인연해서 생기는 것도 있고 그와 無關한 것도 있다. 예로는 그로인해 벌이(業)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아주 드문 것이지만 남의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惡趣味도 있다.

나의 趣味라고 하면 이렇다 할 것은 없고 學校時節에 가벼운 運動을 즐 하던 것과 그 구경을 좋아했던 것이다. 후에 職業을 가진 뒤에는 모든 것이 마음대로 안 되어 간혹 山에 오르거나 낚시를 하는 것이 취미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요즘에 또 하나가 늘어서 글씨 쓰는 것(書藝)에 재미를 들이고 있다.

아다시피 東洋사람은 漢字를 意思傳達의 수단으로 삼아 왔으며 學問을 익히는 根本이 곧 漢字學習으로서 이를 통하여 글을 터득해 내려왔다. 그러므로 漢字는 日常生活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書藝가 獨特하게 나의 趣味라기는 무엇하고 글씨쓰는메에 남달리 熟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 아마도 적당한 말이 될 것이다.

내가 처음으로 漢文을 대한 것은 어렸을 적이었지만 先親의 가르침앞에 뜻도 모르고 하고싶지도 않은 것을 배우다보니 결국 익힌 바는 없고 時間만을 허비한 결과가 되었다. 지금와서 생각하니 그 어른의 有益한 가르침을 소홀히 했면 것이 못내 아쉽고 後悔스러운 뿐이다.

莊子の 말에 「朝菌은 그음과 초하무불 모르고 (朝菌不知晦朔)(조균부지회삭) 매미는 봄 가을을 모른다(蟪蛄不知春秋)(헤고부지춘추)」는 글이 있고 우리 옛말에도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라는 말이 있다. 많은 分野에 대한 이해나 經歷도 적은 나로서 글씨를 배우고자하는 분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감히 내 所見을 披瀝해보고자 한다.

글씨를 쓰고 익히는 것을 나라에 따라 書道라고도 하고 書藝라고도 한다. 글씨는 意思傳達의 수단으로서 예로부터 뚜렷한 약속 즉 規範에 의하여 된 것으로 불림없이 잘 지켜져야 하는 것이 그 基本이 되는 것이다. 또 書藝는 時空을 초월한 예술로서 人間本質淸淨을 위한 思索을 하

게 하며 自己의 人生觀을 表現하는 藝術을 창조하는 作業이라고 생각된다.

한 걸음 더 다가서서 보면 글씨의 體는 예전서부터 篆隸楷行草가 있고 篆書體에는 甲骨文 石鼓文 등 象形的인 글씨가 있다.

이러한 書體가 歷代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여러 名筆家가 즐겨 쓰던 가운데 自己個性과 藝術性을 조화시켜 독특한 書法을 만들게 되었고 이것이 後世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글씨는 앞에서 말한 規範에서 누구나 알아보기 좋게 쓰는 평범한 면도 있지만 藝術的인 면에서 약간의 제약을 받는 면도 있다. 그 제약은 많은 先人名筆들의 書法을 많이 배워서 익혀야만 그 참뜻을 알게 되는 것이다. 本人이 本格的으로 글씨를 써보고자 書室을 찾아 갔었을 때에는 조금만 다듬으면 무언가 되겠지 하는 자식이었으나 배워가면 갈수록 深奧한 면이 있고 많은 書法을 익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初心者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글씨를 배울 수 있겠느냐”고 물으면 내 경험으로 어질쁘게 붓 들고 쓰던 버릇 때문에 내 나름대로 쓰던 것을 正道로 바꾸는 데 힘과 時間을 많이 소요했던 것을 볼 때 처음에는 생소하나 感受性이 좋은 初心者라면 차라리 더욱 배우기 좋다고 대답해주는 한다.

그리고 大家의 글에서 보면 習作하는 자세는 每日 한두時間 꾸준히 工夫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므로 내경우에도 몸나는대로 종이數를 定해놓고 每日 쓰다시피 하였으나 이런 습관을 가지고도 國會書道會 定期展示會가 임박하면 時間에 쫓

기고 또한 생각대로 글씨가 안 되어 말하자면 다른 先生들의 글씨에 비해 불 배 선뜻 썼다고 붓놀기가 힘들어 새벽부터 되풀이 해서 쓰기도 했었다. 이렇게 여러 차례의 出品을 위하여 苦役을 치르다보니 모르는 중에 발전을 가져온 것 같다.

간혹 “글씨를 잘 쓴다는 것은 先天的인 才能이 있어야 되지않느냐”고 묻는데 本人도 때로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다. 하나 노력하고 연구를 거듭하면 어느 水準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과연 名筆이 되느냐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無我之境에서 글의 뜻에 마음에 새겨가며 글씨를 써가는 즐거움이야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보다는 實行을 하는데 착실하게 올바른 길로 가는 것만이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간혹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고는 싶은데 뭐가 안되어서 아직은 못한다”는 등 뒤로 미루는 사람이 있는데 시작이 쑤이라고 뜻이 컸으면 시작을 하고 또한 했으면 꾸준히 계속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될 것이다. 하다보면 간혹 倦怠도 오고 또한 停滯되는 듯한 感이 들 때가 있다.

그러나 一步後退는 二步前進의 徵兆이니 이 장벽을 넘고 가라고 나는 勸하고 싶다. 이 어려운 때가 바로 自身이 못쓰는 발전이 오고 있는 순간인 것이다.

내가 工夫한 과정을 紹介하면 처음에는 歐陽詢(唐)의 九成宮醴泉銘(楷書)를 먼저 工夫하고 王羲之(東晉)의 集字聖教序(行書)와 顏真卿(唐)의 爭座位帖을 海丁朴泰俊先生님의 師事로 臨書하던 中 草書를 써보고 싶어 孫過庭(唐)의 書譜를 臨書하기로 하였다. 先生님께서는 速記符號(文字)를 잘 아니 草書쓰는데 남보다 나

을 것이라고 격려를 해주시기도 했다. 즉 暗記를 해야 한다는 것과 線의 흐름이 規則的이라는 點이 같을 수 있다는 말씀이었다.

한 3年後 國展에 先親父의 詩를 써서 出品하였는데 實力이 말하듯 落榜하였다. 계속해서 여러 書帖으로 練習하고 工夫를 하다가 올 봄 國展(第28回)에 鄭圃隱先生의 詩를 草書로 出品하였던 바 뜻밖에 入選의 末席을 차지하게 되었다.

반가운 마음은 헤아릴 수 없었다. 그러나 工夫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고 더욱 노력해야 된다는 선배님들의 箴戒가 더해지고 또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이 成熟해 갈수록 自慊하지 말고 항상 게으르지 말라는 뜻은 깊이 새겨볼수록 오히려 두려움만이 가슴속에 가득해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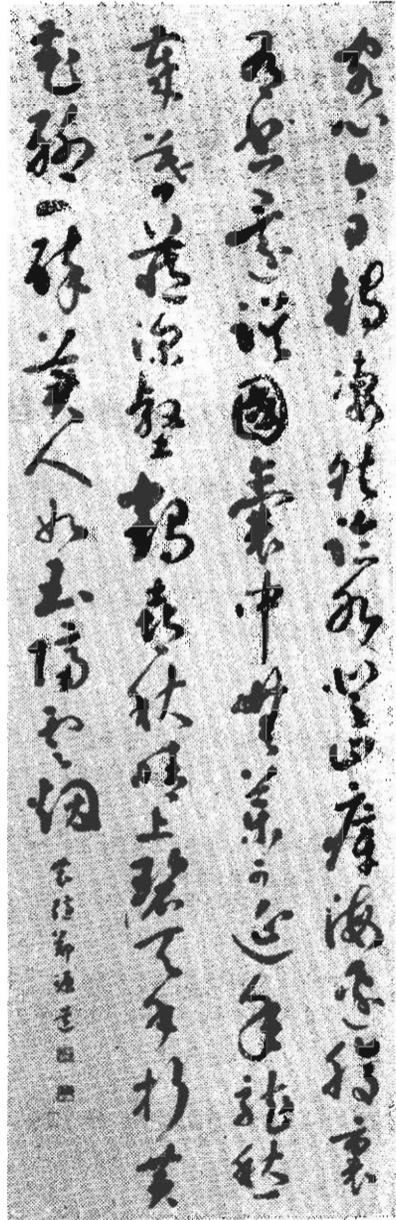
더구나 글씨를 쓰다보면 短文한 탓으로 글 뜻을 잘 모르는 句節이 많다. 先賢들의 哲學의 表現을 集約한 名句들을 그냥 그리다시피하는 경우도 있는 나로서는 글씨를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漢文을 알아야 되겠다는 것도 절실히 느끼고 있다.

以上으로 입선과정에서 겪은 바와 생각한 바를 몇마디 적어보았다.

끝으로 이번 國展에 출품했던 鄭圃隱의 詩를 소개하면서 그치고자 한다.

題 彥陽九日有懷次柳宗元韻。

(彥陽에서 九日을 지내면서 회포가 일어 柳宗元의 詩에 次韻함)
 客心今日轉凄然 나그네 마음 오늘따라
 (객심금일전차연) 처량하기 그지 없어
 臨水登山瘴海邊 물에 가고 산에 오르니
 (임수등산창해변) 해변에서 찬기운만 으
 시시



(國展入選作品)

腹裏有書還誤國 뱃속에 글이 있어 나
 (북리유서환오국) 라를 그르치니
 囊中無藥可延年 주머니속에는 연명할
 (낭중무약가연년) 약이 없다.
 龍愁歲暮藏深壑 용의 수심 해 저물어
 (용수세모장심학) 깊은 골에 감춰있고

鶴喜秋晴上碧天 학의 기쁨 가을 맑아
 (학희추청상벽천) 하늘에 올라가네
 手折黃花聊一醉 손으로 누른 꽃 꺾으
 (수절황화聊一醉) 며 추해보니
 美人如玉隔雲煙 미인은 옥과같이 노을
 (미인여옥격운연) 저쪽에 멀어지네.

(副會長, 國會資編課史料擔當官)

● 名言 산책 ●

● 人生의 각 순간은 무덤으로 향하는 한걸음이다.

—크레비용<티트와 베레니스>

● 오래 산다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의 所願이지만, 훌륭히 산다는 것은 少數
 人의 野望이다.

—J후즈<平修道士>

● 할 수 있는 한 가장 훌륭한 인생을 만들라 인생은 짧고 곧 지나간다.

—W오울더즈<바쁘고, 호기심 많고, 갈망하는 파리>

● 다음의 뱃은 돌아오지 않는다—입밖에 낸 말, 써버린 화살, 흘러간 세월
 간파해 버린 기회

—오마르 이븐<語錄>

● 희망과 인내는 萬病을 다스리는 두가지 치료약이니, 逆境에 처하여 의지할
 가장 믿음직한 자리요, 가장 부드러운 방석이다.

—R버튼<우울의 해부>

● 가시에 찢리지않고서는 장미꽃을 모을 수 없다

—필레이<우화집 : 두 여행자>



40고개에서

金 永 善

내가 20歲前에 40년은 사람이 할아버지로 보았던 것같은데 내가 40이 넘은 오늘 내 생각은 20年前이나 別 差異가 없다. 40이 넘으면 自己 얼굴에 대한 責任을 自己가 지라고 한다. 그만큼 世上을 살았으면 이제는 父母가 남아 길러준 그 밑천은 거의 사라졌고 自己 스스로가 살아온 經歷이 얼굴에 찍 찼으니 이제 自己 나름대로의 삶을 追求할 수 있게 됐다는 뜻으로 들린다. 그런데 40이 넘은지도 6年이 되는 내가 歲月이 갈수록 모르는 것이 더 늘고 하고싶은 일이 더 많아지고 時間이 더 아쉬워진다. 今年 설지난 것이 엇그제 같은데 3個月마다 바뀌는 出勤「카아드」가 석장짜가 다 차간다. 지난 8個月半동안 밋을 했는가 해놓은 아무것도 없으나 나름대로 誠實히 生을 이어오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 왜 살며 무엇을 바라고 사는가 20餘年前 學窓時節에 “먹기위하여 사느냐 살기위하여 먹느냐”라는 題目으로 熱氣있는 討論을 한 적이 있다. 그때 나를 爲始하여 대부분의 意見이 살기 위하여 먹는다는 主張이고 먹기위하여 산다는 主張을 하던 친구가 困辱을 치문것이 記憶에 生생한데 지금 똑 같은 題目으로 討

論을 벌린다면 먹기위하여 산다는 便에 서게 될 것 같다. 이런 變化는 世態가 享樂爲主로 變함에 의한 것인지 내 나이가 든 탓인지는 모르나 조금은 人生을 더 알게 됐다는 뜻일 것이다. 그때는 20歲 前後의 年富力強했던 時節이고 社會의으로도 戰後 復舊段階에 있던 混亂期였으니까 自身の 現實에 安住해가지고 삶을 즐긴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때였다. 世界의 月給쟁이중에서 自己 處地 즉 社會의 身分에 가장 安住하는 것이 「프랑스」라고 한다. 그곳에서는 貴族의 子息은 어려서부터 貴族다운 教育을 받고 上流社會의 禮儀範疇을 배우며 勞動者는 勞役場의 什長以上은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社會階層間에 서로 위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自己가 태어난 階層에 대부분 順應하여 一生을 사는 그런 社會에서는 그런대로 삶이 쉽게 定着되는 것은 當然하리라. 그런데 우리 社會는 얼마 前까지만 해도 恒常 目標를 向하여 突進하여야 했고 옆은 물 거름이 없고 先頭走者를 앞지르는 것이 急先務였다. 그런 狀況이니 지금의 50代는 대부분 소위 家業을 이루겠다고 人生의 黃昏期까지 晝夜로 努力해서 흑돈

만은 벌었는데 다른 方面은 다 門外漢이 되었고 아들 며느리는 父母가 돈아까워 타지 못하는 택시를 으레 타고 다녀야 하는 것으로 알고 浪費한다고 꾸짖는 시어머니에게 돈은 두었다가 뭇하느냐고 대드는 며느리 꼴을 보게 된다. 20에서 40이 그리 오래지 않은것 같은데 40이면 人生을 마무리할 準備를 시작해야 할 나이라고 한다. 平均壽命이 70을 넘는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活動할 것인가 또 60이 넘어 衰退되어가는 生命力으로 몇 10年 더 살아서 果然 幸福하겠는가 짧은 人生이나마 알차고 보람되게 사는 것이 課題겠는데 10年後의 나를 10年위의 先輩에 比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누구나 다 계밧에 산다고는 하지만 나는 어떤데에서 보람을 찾고 살아야 할까 나대륙의 뜻을 이루면 되겠지만 一般的으로는 어떤까. 큰 富者, 強力한 權力者, 超人的인 體力の 所有者…… 이런 形態로 찾아서는 찾지 못할 것 같다. 그저 現在의 幸福과 未來의 希望이 있는 人生이 가장 바라는 바겠지, 幸福은 各自의 마음에 있는 것이지 可視的인 物質에서 求할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한집안 食口라도 다 같이 幸福할수는 없는 것이다. 未來의 希望은 아직 오지않는 것인데 무슨 價値가 있는가 過去는 지나가 버렸고 未來는 오지 않았으

니 現在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데 사람은 未來를 위하여 사는 것 같다. 적은 月給에서 卞박卞박 貯蓄하는 것이나 젊은 사람이 늙은 後를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의 行動은 多分히 未來志向의이라고 할 수 있다. 人間이 假想한 무서운 곳인 地獄의 入口 地獄門의 懸板에 여기를 지나는 者는 一切의 希望을 버리라고 「단테」는 神曲에서 썼다. 그러면 絶望=地獄이라는 等式도 成立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지 未來의 漠然한 걱정을 多少나마 解消해 보려고 宗教 占術등 여러 가지에 依支하면서 現在의 삶을 若干씩 犧牲시키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확실히 알 수 있는 未來는 太陽系의 運行밖에 없다. 晝夜, 四季節 日蝕 月蝕등은 精確히 豫見할 수 있으나 人間事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 5000年 歷史를 보아도 똑같은 歷史의 되풀이는 없다 다만 어떤 事態의 發展 衰退過程의 類似性이 있을 뿐이다. 個人의 生活도 그렇다. 그렇다면 不確實한 未來보다는 現在, 먼곳사람보다는 가까운 곳부터 잘 지내는 것이 賢明한 것 아니냐 方法이야 勤儉하고 道理에 맞는 生活을 하든 꿈같은 浪漫속에 스스로를 묻는 生活을 하든 後悔없이만 살았으면 한다.

(國會公務員研修院擔當官)

첫 차

柳 成 秀



K!

뭔가 아쉬움이 물에
젖은 옷처럼 내마음 어
디엔가 달라붙어 있다
네. 뚜렷한 동기를 파
헤쳐 불러치면 이내 확
실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한다네 사랑보다 무서운게 뻘
이라는 말이 어쩌면 지금 내게 있어서 크
게 「어쩔」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인지 모르
겠다.

K!

일전에 면접을 볼겸 浦項에 내려갔을
때 꼭 자비에게 말해 주고픈 하나를 발견
했어. 그곳 會社에서는 사무실의 좌석배
치부터 직책별로 앞쪽으로만 향해 있어
그 살벌한(?) 분위기가 우리 速記課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감을 내게 주었어.

나아닌 다른 사람과 또는 課와 課, 더
나아가 會社와 會社와의 경쟁은 발전지향
적인 면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바람직
스럽다는 건 나도 알지만 언뜻 스쳐가는
斷想이 있었네, 이겨내야 한다는 그런 초
조감이랄까?

K!

하지만 우리는 養成所時節에 비록 지하
실이었지만 서로가 可能性을 확인했고 速
記士 채용시험에 합격의 행운을 누리면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지 않았던가. 분
명 이것 큰 재산이야.

K!

人間은 어떤 능력을 떠나 그에게 주어
진 使命感이 그의 가슴속에 얼마나 작용
하느냐에 따라 그가 추구해 나가는 일의
成敗가 달려 있는게 아닐까? 이제 진리
는 아닐지 몰라도 나는 이걸 내 信念의
한 방편으로 삼고 있다네.

작년 가을 速記展示會때에도 어느 정도
의 성공을 거두었다면 남의 일이 아니라
는 어떤 使命感속에서 결실을 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같은데.

K!

때로는 나의 미련한 고집으로 자비와
싸우기도 했었는데만 뭐랄까 내 스스로 速
記課를 떠나지 않았다는 또 하나의 고집
을 버릴 수가 없으니 웬일일까?

같은 나이에 각각 직장을 택해서 생활
하다가 몇년 후에 만나보면 우리 速記課
에 근무했던 사람은 어려 보인다는 이런
말들은 —그래서 결혼이 늦어지는 경향

도 없지 않는 것 같지만——정말 자랑하
기조차도 아까운 보석이 아닐까?

K!

비록 그게 아니더라도 좋아. 우리는 보
석을 지닌 젊은이라고 자부해야 되지않을
까. 더 나은 速記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포부를 가져보자. 결과부터 생
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말자. 만용에 가
까울 정도의 야망이라도 좋아 우리에게
아직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한거야. 지혜만으로는 부족
해. 힘찬 불꽃의 흐름속에서만 지혜
도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게 아닐까?

K!

난 컷차를 타고있네.

여긴 자취도 없는 새벽공기가 있어. 전
송의 인적이 없는 새벽벽의 시발벽이 정
말 좋아. 나혼자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출발해야 하니까. 해가 뜨고 지기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어.

K!

먼 발치에서 지켜봐주게

신앙이 있어 어디에도 향하든

출발의 기척이 이미 오매 건에 울렸어
출발말이야.

—내가 존경하고 나물 아껴주시던

모든 분들에게 인사 드려줄것을 부

탁하면서—

(浦項製鐵 秘書室)

* * *

速記에 관한 相談을 받습니다 (Counseling of Shorthand)

國語 및 英語 速記關係資料, 學習, 請託等 速記에 關한 모든 問議는 本協會涉外
部에서 取扱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친절하게 案內할 것이오니 會員諸位와 速記에 關心이 많은 分은 널리
利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相談所(Counselor) : 本協會涉外部 Tel. 7802-2472

* 詩 *

冬栢亭思



具 寬 謨

(조달청 외자총괄과)

갑자기

지친 내눈에 보이는

아— 이 五色 무지개바다

그대여

나는 이밤, 이 은잔으로 죽을 친다오

철렁이는 저 五色 무지개 물결이, 진정

그대의 푸르른 사랑의 마음인가

이토록 방울방울 내 가슴에 듣는

그대의 정념이

사뭇 오늘밤을 아름답게 한다오

춤추는 저 바다 깊이깊이

이내마음 띄우면

저 넓은 바다는 온통 나의 분신,

온통 당신의 그늘일테요

그곳에 이토록 시원한 마음의 창을 달고

찬란한 미래를 심으며

꿈의 꽃을 꺾으리

아— 이 五色 무지개바다

나는, 꿀꺽 삼키오리

그리고 당신과 난

우리위를 비추는 저 달과 저 별들을

금실은실 수를 놓은 초대장에 주어담고서

매일매일 이날을 즐겨 되뇌며

푸른담장 넘어로 웃음 보내며

두둥실 두둥실 뱃놀이하는

조용한 바다를 잉태하리라

아— 바다가 깨인다

꿈이 깨인다

지나여름

冬栢亭에서

用語解説(13)

研究委員會

◎콜렉트·콜: 시의 電話料金を 受話者が 負擔하는 制度. 우리나라도 1979. 4. 15 이 制度가 導入 施行되고 있다.

◎유스·호스텔(Youth. Hostel): 靑少年을 위한 값싼 숙박시설.

◎뱅크·론(Bank. Loan): 은행間的 借款. 低開發國에 대한 民間經濟協力方式의 하나로 후진국의 은행이 先進國의 은행에서 융자하여 自國企業에 대해 자금을 貸付한다.

◎유니버시아드(Universiade): 국제학생 경기 대회. 대학생이나 졸업 2년 이내의 28歲 이하의 청년만 참가 할 수 있다. 2년에 한번씩 夏季, 冬季大會가 따로 개최된다. 57년 서방측의 국제대학체육연맹과 공산측의 국제학생연맹이 통합되어 設立되었다. (우리나라는 67년 東京유니버시아드대회 때부터 본격적으로 참가) 73년 「모스크바」대회에 우리 나라 「팀」이 참가하여 소련에 처음 입국했고 75년대회는 「유고」에서 열기로 됐으나 「유고」정부의 사퇴로 유회되었고 금년 79년에는 「멕시코」에서 열렸으며, 남자배구대회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땀다. 81년에는 「브라질」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로 달러(Euro-Dollar): 美國이외의 은행에서 취급되며 주로 「유럽」에서 유통되는 「달러」를 말한다. 단기 資本去來에 쓰이며 금리를 좇아 투기, 이동이 심한 일종의 핫·머니(Hot Money)이다.

60년대에 들어 미국의 국제수지가 악화되면서 「유로 달러」의 금리는 10%를 넘은 적이 있으며 70년대에는 한때 14%까지 올라간 일도 있다.

◎LIBO 金利: LONDON INTER BANK OFFERED RATE를 줄인 말로 「런던」 金融市場에서 이루어지는 銀行間 預金 金利를 뜻한다. 이 金利로 「유로 달러」(美國 以外 地域에서 去來되는 달러) 金利의 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金利決定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 金利의 變動은 「유로달러」의 本源의 供給處인 美國의 主要 金融政策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物價連動制: 物價上昇率만큼 每年 價格을 引上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가령 올해 消費者物價上昇率을 12%로 잡았을 때 그 範圍안에서 事業者가 價格引上을 要請하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表示價格調整은 每年 當該年度 物價上昇率 範圍內에서 價格引上을 自動承認한다는 말이다.

◎保證信用狀: 一名 「스탠드 바이」 信用狀이라고도 한다. 國內會社의 海外支社가 韓國으로 부터의 商品을 수입할 경우 現地金融을 이용하기 위해 국내은행에서 보증을 받는 信用狀을 말한다.

◎他人貸: 企業이 자기계획에 他企業發行 어음이나 수표를 넣어 資金化 시킴으로써 不渡를 막는 方法이다. 企業의 資金事情이 艱박한 요즘 銀行長 責任 아래 他人貸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로 인해 연쇄적인 企業不渡事態를 유발할 우려가 發生된다. 銀行監督院은 이같은 副作用을 감안 他入貸를 철저히 금하고 있다. 他入貸는 交換에 돌려지지 않는다.

◎國民計定體系：企業의 營業活動을 기록하기 위하여 企業會計라는 일정한 會計方式이 필요한 것처럼 國民經濟에 있어서의 經濟活動을 기록하기 위하여도 일정한 會計方式이 필요한데 이것이 國民計定體系이다. 「유엔」은 통일적인 會計方式으로써 1953년에 國民計定體系(이를 舊 SAN이라 함)을 마련하여 각국으로 하여금 이에 따라 國民所得計定을 작성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뒤 1968년에는 國民所得外에 產業關聯分析·資金循環·國際收支·國民貸借對照表를 통합한 보다 포괄적이고 정밀한 國民計定體系(이를 新 SAN이라 함)을 새로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아직 舊 SAN에 따라 國民所得統計를 작성하고 있으나 新 SAN으로의 개편을 위한 기초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턴키契約·넨턴키契約：Turn Key Base와 Non Turn Key Base는 一括都給과 發注者主導型的 契約을 말한다. Turn Key 契約은 工事に 있어서 受注契約者가 主機器를 직접 生産하여 設置함으로써 品質이 良好한 반면 補助機器 등은 經費節減을 위해 群小業體로부터 不良機器를 供給하는 弊端과 技術과 用役의 便宜를 提供하지 않고 工事が 끝나면 契約도 끝나는 發注者側에서 보면 不利한 契約이다. 한편 Non Turn Key 契約은 主機器의 供給은 Turn Key와 同一하나 補助機器들은 직접 發注者가 購入함으로써 良質의 物品을 設置하며 技術과 用役을 提供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Turn Key 契約에 비해 유리한 契約이다.

會費納付案内

協會에서는 會員諸位의 희비남부에 편의를 圖謀하기 위하여 우편대체구좌 (532689)를 마련했
아온 바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회비는 月 200
원(年 2400원)입니다.

協會運營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참신한 의견
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 소 식 란 ○



- 第9回 速記人體育大會가 6월 3일 韓國道路公社球場(판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鄭源道副會長께서 1979년 春季國展書藝部門에 團隱先生詩(草)를 出品하시어 榮譽의 入選을 하였습니다.
- 79년 4월 1일 金鎮基指導委員께서 國會公務員研修院에서 建設委員會 行政官으로 轉補되었으며, 法司委員會 法制官이던 金永善회원은 8월 10일 書記官으로 昇進, 國會公務員研修院 敎育擔當官의 補職을 받게 되었습니다.
- 2월 23일 부터 26일 까지 열린 民主共和黨創黨 第16周年紀念卓球大會에 國會事務處代表팀으로 崔滉洙, 成千永회원이 出戰하여 團體戰에서 榮譽의 優勝을 함으로써 2連霸를 이룩했으며 이大會에서 善戰한 成千永회원은 國會事務總長의 表彰을 받았습니다.
- 5월 31일 金敬萬회원과 朴奭植회원이 國會開院30周年紀念 速記展示會 준비의 功勞로서 國會事務總長의 表彰을 받았습니다.
- 78년 12월 29일 第97次 理事會에서
 研究委員會는 위원장 崔滉洙, 위원 金致元, 河良培, 玄柄高 간사 金銅洙회원을,
 資格審査委員會는 위원장 柳智永, 위원 宋基喆, 崔滉洙, 朴奭植, 金積燾, 趙永昌, 간사 金京中회원을 각각 選任하여 구성되었습니다.
- 第24回 冬季速記講習은 東邦·新世界 兩學院에서 실시한 바 受講人員은 국어 481명 영어 253명 계 734명이며 修了人員은 국어 302명 영어 145명 계 447명이었으며, 第25回 夏季速記講習은 東邦學院에서만 실시한 바 受講人員은 국어 188명 영어 114명 계 302명이며 修了人員은 국어 139명 영어 66명으로서 계 205명이었습니다.
- 6월 10일에 있었던 國회속기직공무원 채용시험에서 議會式的 정주현, 유희연, 조신자, 안기철, 이정구, 허광현 東邦式的 고정효 이상 7명이 合格했는 바 이를 축하하며 아울러 79年度 新入會員으로 入會한 것을 환영합니다.
- 그동안 速記課에 근무하던 柳成秀회원이 9월 1일자로 浦項綜合製鐵로 職場을 옮겼으며 趙永昌회원은 外國語大學 同時通譯大學院에 合格, 학업에 전념하기 위해 退職하였고 金敬海회원은 家事로 각각 依願免職하였습니다.
- 79년 6월 6일 大邱速記學院이 개원함에 따라 地方에도 速記文化의 정착을 기대할 수 있게되었고 또한 高麗速記學院이 9월 1일 鐘路 2가 장안빌딩 4층에서 再開院함으로써

速記士養成의 一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盧英民회원은 韓國速記教育協會 理事長에 취임하면서 79년 7월 本協會를 탈퇴 하였습니다.

○會員動靜

(1) 軍入隊

吳光雄회원 (79. 5. 24), 李貞九회원 (79. 8)

(2) 復職

軍에 복무중이던 李京植회원 (79. 4. 24)과 尹鶴儂會員(79. 11. 28) 이 除隊하여 速記課에 復職

(3) 結婚

朴正鎬회원 (78. 12. 23), 金京中회원 (79. 1. 13), 金戰鶴회원 (79. 2. 24)

金鍾喆회원 (79. 9. 15), 金蘭姬회원 (79. 10. 2), 金昶頌회원 (79. 10. 13)

李美海회원 (79. 12. 1), 李承哲·金學順회원 (79. 12. 8)

原稿募集

會員 여러분의 權益을 代辦하고 會員相互間의 紐帶와 速記研究 發表의 窓口 노릇을 함으로써 速記文化에 寄與코자 함이 本會誌의 發刊취지인만큼 여러분의 어떠한 投稿도 환영합니다

다음 要領에 의해 서슴치 마시고 會誌編輯者에게 보내 주십시오.

☆ 보내실 곳 : 本協會 渉外部(國會速記課) Tel. (7802) 2472

- ◇ 表紙그림.....세로 가로 15cm정도
- ◇ 研究論文.....200字原稿紙 20~40枚
- ◇ 速記實務.....200字原稿紙 15~25枚
- ◇ 回想記.....200字原稿紙 15~25枚
- ◇ 隨筆.....200字原稿紙 15~20枚
- ◇ 詩, 詩調, 散文, 기타提言등

※ 採擇된 原稿에는 所定の 稿料를 드립니다.

第12回 定期總會

社團 大韓速記協會
法人

1. 日 時：1978年 12月 22日 午後 3時
2. 場 所：國會 146號 會議室
3. 出 席：在籍會員 165名中 92名 出席
4. 附屬案件

- 〈1〉 會務報告
- 〈2〉 1978年度決算承認 및 監查報告
- 〈3〉 1979年度事業計劃案 및 豫算案承認
- 〈4〉 會員表彰
- 〈5〉 任員改選

5 會務報告

1. 理事會運營

77년 12월 24일의 第11回 定期總會에서 선임된 理事로 구성된 理事會는 77년 12월 27일 第87次 理事會에서 부터 78년 12월 7일 第95次 理事會까지 9차회합을 통하여 理事단의 擔當部署決定 擔當部長 및 幹事の 任命 78년도 新年人事計劃 放學 講習 資格審査委員會構成(7人) 研究委員會構成(5人) 速記料金改正 會規 및 資格 審査規程改正 體育大會 開催 資格檢定試驗實施, 建議事項, 速記界 第19號 發刊 第12回 定期總會 開催, 國會 및 法院勤務會員의 轉職 등 協會 業務執行을 위한 諸 決議를 하였음.

2. 涉外活動

速記界와 관계있는 각계인사를 방문하여 新年人事를 하고 法院, 國會의 速記職의 장래에 대한 建議를 하였으며 그 결과 國會는 6월 1일 行政職으로 法院은 10월 1일 法院職으로 轉職되었음. 또 國會事務處主管 國會開院30周年紀念 速記展示會에 當협회보관 속기관계 서적 및 자료를 제공하여 속기에 대한 일반의 이해증진에 기여토록 하였음.

3. 會誌 發刊

78년 11월 30일까지 원고를 마감하여 12월 15일 速記界 第19號를 발간하여 회원 및 각계에 배부하였음.

4. 速記講習

	기 간	장 소	강의법식	수강인원	수료인원
동계 강습	'78 1.13~2.2	동방 속기학원 신세계 속기학원	동방, 고려 「그레그」	국어 : 410 영어 : 340	국어 : 298 영어 : 150
하계 강습	'78 7.25~8.14	동방 속기학원 신세계 속기학원	동방, 고려 「그레그」	국어 : 154 영어 : 124	국어 : 130 영어 : 87

5. 資格檢定

회 수	일 자	응 시 인 원	합 격 인 원
14회	'78 4.23	국어 : 91 영어 : 23	국어 : 51 영어 : 7
15회	'78 11.26	국어 : 106 영어 : 33	국어 : 44 영어 : 2

6. 體育大會

78년 9월 3일 京畿道 신갈에 위치한 韓國外換銀行研修院球場에서 第8회 속기인재육대회를 261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하였음.

7. 外國語部 活動

美國 NSRA 및 stenotype company와 니차체의 通信交換을 하여 外國速記界의 현황을 파악하여 협회업무에 參考토록 하였음.

8. 기 타

회원의 회비납부 편의를 위하여 대체구좌(532689)를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을 통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법인정보고서등의 일반업무도 적절히 처리하였음.

6. 議決된 案件

(1) 1978年度 決算

세		입		세		출	
관	항	예산액	결산액	관	항	예산액	결산액
기	본 수 입	298,000	287,300	회	의 비	335,000	327,460
원	회 비	288,000	268,300	경	기 총 회	200,000	200,000
입	회 비	10,000	19,000	회	의 비	136,000	127,460
사	업 수 입	2,230,000	2,603,000	경	상 비	172,000	161,500
방	학강습수수료	2,000,000	2,151,300	사	무 비	72,000	61,500
자	격검정수수료	230,000	452,000	활	동 비	100,000	100,000

찬	조	금	500,000	200,000	수	용	비	5,000	0		
잡	수	입	350,000	322,428	사	업	비	2,100,000	1,743,530		
이	월	금	1,920,285	1,920,285	방	학	강	습	1,306,000	1,306,000	
					속	기	경	기	대	255,000	0
					자	격	검	정	시	239,000	237,530
					학	교	및	사	회	100,000	0
					단	체	속	기	강	200,000	200,000
					체	육	대			511,620	409,490
					업	외	비			75,000	75,000
					업	외	팔	동		436,620	334,490
					회	지	발	간		148,000	0
					연	구	비			240,000	240,000
					관	공	비			1,785,665	762,685
					예	비	비			1,688,648	1,688,648
					이	월	금				
계			5,298,285	5,333,313	계			5,298,285	5,333,313		

<監査報告書>

定款 第29條의 규정에 의거 1978년 12월 14일 현재 本協會의 財政現況을 監査한 結果 決算書와 相違없음을 報告합니다.

1978. 12. 22

監事 高 太 仲
" 蔡 康 熙

<2> 1979年度 豫算

세		입		세		출			
관	항	예	산	관	항	예	산		
기	본	수	입	회	의	비	436,000		
월	회	비	298,000	경	기	총	회	300,000	
입	회	비	288,000	회	의	비	136,000		
사	업	수	입	경	상	비	178,000		
방	학	강	습	사	무	비	78,000		
자	격	검	정	팔	동	비	100,000		
찬	조	금	500,000	수	용	비	5,000		
잡	수	입	280,000	사	업	비	3,244,000		
이	월	금	1,688,648	방	학	강	습	2,166,000	
				속	기	경	기	대	255,000
				자	격	검	정	시	239,000
				학	교	및	사	회	100,000
				단	체	속	기	강	200,000
				체	육	대			511,620
				업	외	비			75,000
				업	외	팔	동		436,620
				회	지	발	간		148,000
				연	구	비			240,000
				관	공	비			1,785,665
				예	비	비			1,688,648
				이	월	금			

		속 기 경 기 대 회	345,000
		자 격 검 정 시 험	333,000
		설 의 비	478,310
		설 의 활 동	100,000
		회 지 발 간	378,310
		연 구 비	145,000
		속 기 학 술 연 구	145,000
		판 공 비	240,000
		예 비 비	1,480,338
계	6,206,648	계	6,206,648

〈3〉 會員表彰

그동안 협회발전에 공로가 많은 회원에 대해 표창이 있었음.

趙隅石 盧熙南 金亨坤(3名)

〈4〉 改選된 任員

定款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任期滿了된 任員을 다음과 같이 選出하였다.

會 長	金龍泰(國會議員)	副 會 長	鄭源道(國會史料擔當官)
願 問	李鎬暉(國會事務總長)	理 事 長	金仁寧(國會行政事務官)
"	權孝燮	總務·財政部	金祖顯·金鍾喆
"	吉基祥(國會事務次長)	涉 外 部	崔性周·崔吉柱
"	崔興俊(國會專門委員)	事 業 部	成千永·柳成秀
"	劉龍珪(國會專門委員)	外 國 語 部	趙永昌
"	趙琮鉉(國會議事局長)	研 究 委 員 會	崔湜洙·金銅洙
指導委員	姜駿遊	資 格 審 查 委 員 會	柳智永·金京中
"	張基泰	無 任 所	安仁榮(國會速記課長)
"	金星漢	監 事	金基英·河大煥
"	李東根		
"	金鎭基(國會建設委行政官)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沿革 및 主要日誌

(79年 12月 현재)

55. 11. 13 大韓速記學術協會로 創立
57. 4. 27 大韓速記協會로 改稱
60. 4. 19 4. 19 지우 포고령에 의한 社會團體再登錄不履行으로 기능정지
66. 7. 26 創立準備委員會 개리 (委員長 姜駿遠)
8. 20 발기인대회 : 會員資格審査委員會構成
12. 10 創立總會(新聞會館)
- ① 定款採擇
- ② 名譽會長 李孝祥 國會議長추대
- ③ 會長 李源萬 議員選出
- 副會長 姜駿遠, 李東根選出
- 第1次 理事會에서 理事長 金宗煥選出
12. 21 第4次 理事會
- 會規制定
67. 1. 7 第5次 理事會
- 資格審査委員會 構成
1. 30 第1回 無料速記講習
- ~2. 19 受講人員 : 男 293名, 女 211名
- 修了人員 : 男 138名, 女 96名
4. 29 第1回 定期總會(F.Y. 67. 5. 1~68. 4. 30)
- 名譽顧問에 金鍾泌 共和黨議長 추대
- 顧問에 裴泳鎬 國會事務總長, 李鎬賑 專門委員, 權孝燮 議事局長추대
- 會規制定採擇
5. 1 “速記文化” 創刊號 發刊
68. 4. 27 第2回 定期總會
- 1968年度 事業計劃案 및 豫算案承認
- 資格審査 및 技能檢定規程의 追認
5. 20 第3回 臨時總會
- 法人體 設立을 위한 發展의 解體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로 發足시킬 것을

議決

準備委員會 構成(委員長 安仁榮)

5.22 第1次 準備委員會

6. 4 假稱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創立總會(국회 속기사 양성소)
創立趣旨文採擇

任員選出

會長 李源萬議員

副會長 張基泰·李東根

理事長 安仁榮

8. 2 第4回 速記無料講習

~8.20 受講人員 451名, 修了人員 242名

8.21 文化公報部에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認可申請

69. 1. 13 第5回 速記無料講習

~2. 1 受講人員 854名, 修了人員 540名

4. 14 文化公報部에서 社團法人체로 認可(138號)

4. 18 法院에 登記完了(登記番號 1509號)

5. 1 第1回 臨時總會(新聞會館大講堂)

任員改選

理事長 鄭源道

5. 6 第1次 理事會

速記技能檢定委員會構成

6. 4 第2次 理事會 東邦速記學院을 協會指定學院으로 認可

12. 30 第2回 定期總會

支部設置承認의 件

任員改選

會長 崔致煥議員

理事長 李東一

70. 1. 14 第6回 冬季速記無料講習(建國大學校)

~2.3 受講人員 745名, 修了人員 324名

3. 16 1/4분기 국고보조금 240,000원 수령

4. 30 “速記界” 創刊號 發刊

5. 17 第1回 全國速記士資格檢定試驗

第1回 全國速記競技大會

正級 1等 高太仲

8. 3 第7回 夏季速記無料講習

~8.22 受講人員: 國語 446名, 英語 124名

- 修了人員：國語 217名，英語 88名
9. 7 光復25周年紀念速記展示會開催
- ~9. 10 場所 國會議員休憩室
 參觀人員・1141名
 速記文字로 朴正熙大統領・李孝祥 國會議長
 肖像畫製作
 院外展示：70. 10. 1~10. 3 國立公報館
 參觀人員：9967名
12. 14 東亞日報速記講習(首論機關講習)
12. 30 第3回 定期總會
 缺員理事의 補選
 理事長 安仁榮選出
 定款變更
71. 1. 12 第8回 冬季速記無料講習
 ~2. 2 受講人員：國語 827名，英語 252名
 2. 9 前理事長 鄭源道(3代)，李東一(4代)에 感謝牌 수여
 4. 17 第1回 速記人體育大會
 장소：城北區 新興寺뒤 광장
 6. 21 德成女子大學 巡回講習：Gregg式 104名
 ~7. 21
 7. 19 第9回 夏季無料速記講習
 ~8. 14 受講人員：國語 440名，英語 133名
 8. 28 第2回 全國速記士資格檢定(국어·영어)試驗
 8. 31 第2回 全國速記競技大會
 正級 1等 金仙玉
 9. 1 名譽會長에 白斗眞 國會議長 추대
 12. 30 第4回 定期總會
 任員補選
 會長 金龍泰議員
 副會長 金鎮基
72. 1. 4 京鄉新聞記者에 대한 速記講習
 ~15
 1. 17 第10回 冬季速記無料講習(YMCA)
 ~2. 5 受講人員：國語 922名，英語 231名
 3. 21 “速記總覽” 第1輯 發刊
 5. 7 第2回 全國速記人體育大會(安城孔道中學校)

- 6.15 第5回 臨時總會
定款 第3條(目的)改正
- 7.5 定款 第3條 變更許可(文化公報部)
- 7.13 國庫補助金申請에 대한 回信(文化公報部)
2/4分期부터 補助金削減에 따라 支給中斷
- 8.8 第11回 夏季速記無料講習
~28 受講人員：國語 324名，英語 80名
修了人員：國語 207名，英語 43名
- 10.1 第3回 全國速記士資格檢定試驗
- 10.27 第39次 理事會
大統領特別宣言에 대한 支持聲明의 件
- 12.30 第6回 定期總會
任員改選
理事長 金永善
- 73.1.11 第12回 放學講習
~31 受講人員：國語 621名，英語 145名
修了人員：國語 413名，英語 115名
- 4.28 第4回 全國速記士技能檢定試驗
- 5.4 協會「마크」製作(도안 蔡康熙)
- 5.6 第3回 全國速記人體育大會
場所：南怡社 參加人員：151名
- 7.16 第13回 放學講習
~8.4 受講人員：國語 234名，英語 52名
修了人員：國語 141名，英語 35名
- 10.24 第5回 全國速記士技能檢定試驗
- 12.22 第7回 定期總會
- 74.1.11 第14回 放學講習
~31 受講人員：國語 550名，英語 163名
修了人員：國語 316名，英語 82名
- 3.11 第49次 理事會
法院書記 速記教育의 諸問題討議
- 4.4 第6回 全國速記士技能檢定試驗
- 5.5 第4回 全國速記人體育大會
場所：農協初級大學(삼송리)
- 7.29 第15回 放學講習
受講人員：國語 213名，英語 84名

- 修了人員：國語 136名，英語 49名
- 12.21 第8回 定期總會
任員改選
理事長 崔錫模
- 75.1.13 第16回 放學講習
~2.1 受講人員：國語 697名，英語 201名
修了人員：國語 423名，英語 125名
- 2.17 第58次 理事會
文書處理內規制定
- 3.6 서울市立婦女事業館 速記開講(강사 金永春)
- 3.22 昌德女高 速記開講(강사 金亨坤)
- 4.27 第8回 全國速記士技能檢定試驗
- 5.18 第5回 全國速記人體育大會
場所：泰陵選手村
全國速記人體力安保躍起大會
- 5.19 防衛誠金 獻納(서울新聞社)
- 7.28 第17回 放學講習
- ~8.20 受講人員：國語 184名，英語 90名
- 11.2 第9回 全國速記士技能檢定試驗
- 12.27 第9回 定期總會
會規改正
- 76.1.12 第18回 放學講習
受講人員：國語 478名，英語 201名
修了人員：國語 340名，英語 130名
- 4.25 第10回 全國速記士技能檢定試驗
- 5.2 第6回 全國速記人體育大會
場所：韓國產業銀行研修館(강남구 하일동)
- 7.26 第19回 放學講習
受講人員：國語 212名，英語 114名
修了人員：國語 144名，英語 44名
- 9.20 會員 10名 法院으로 轉職
- 10.31 第11回 速記士資格檢定試驗
- 12.11 第10回 定期總會
定款改正
- 77.1.12 第20回 冬季講習
~2.1

- 2.28 한국의會員 表彰牌 授與(會長)
- 4.17 第12回 速記士資格檢定試驗
5. 1 第7回 全國速記人體育大會
場所：泰陵選手村
- 5.10 法院登記完了
- 7.25 第21回 放學講習
- ~8.13
- 11.6 第13回 速記士資格檢定試驗
- 12.24 第11回 定期總會
功勞牌授與：金宗煥·高太仲·高用培·金基英·金永春·金允洙·金仁寧
申世華·梁源龍·楊激在·柳智永·李康賢·李龍洙·蔡康熙
崔秉秀·韓鍾烈·黃寅河
- 78.1.13 第22回 放學講習
- ~2. 2
- 4.23 第14回 速記士資格檢定試驗
- 7.25 第23回 放學講習
- ~8.14
9. 3 第8回 全國速記人體育大會
場所：한국의 환은행 연수원구장
- 11.26 第15回 速記士資格檢定試驗
- 12.14 第12回 定期總會
任員改選 理事長 金仁寧
有功者表彰(趙隅石·盧熙南·金亨坤)
- 79.1.11 第24回 放學講習
- ~31
- 5.13 第16回 速記士資格檢定試驗
6. 3 第9回 全國速記人體育大會
場所：韓國道路公社球場
- 7.23 第25回 放學講習
- ~8.11

(總務部계공)

資格審査委員會規程

1969. 5. 1 制定
1971. 7. 6 改正
1973. 4. 7 改正
1974. 10. 11 改正
1978. 2. 18 改正
1978. 11. 30 改正
1979. 4. 23 改正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規程은 資格審査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 會員의 資格審査 및 懲戒, 速記士 資格檢定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章 資格審査委員會의 構成과 運營

第2條(構成) ①資格審査委員會(이하“委員會”라 한다)는 資格審査委員長 및 理事會에서 選任하는 7人이내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②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幹事 1人을 둔다.

③委員長은 理事會에서 選出하며 幹事는 委員中에서 互選한다.

第3條(職務) ①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統理한다.

②幹事は 委員會會議錄作成 및 其他 委員會의 事務를 處理한다.

③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幹事が 그 職務를 代理한다.

第4條(機能)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査處理하여 理事會에 報告한다.

1. 會員의 資格審査 및 懲戒에 관한 事項

2. 速記士資格檢定試驗에 관한 事項

第5條(委員會의 召集) 委員會는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理事長이나 委員 3分の 1이상의 要求가 있을 때에 委員長은 이를 召集하여야 한다.

第6條(議決定足數) ①委員會는 在籍委員 3分の 2 이상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②委員長은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때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第7條(參考人出席) 委員長은 第4條의 機能을 充分히 遂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關係되는 參考人을 出席시켜 證言을 들을 수 있다.

第3章 會員의 資格審査 및 懲戒

第8條(會員의 資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中 協會의 諸般義務의 遵守를 受諾한 者를 正會員으로 한다.

1. 國語速記士資格 2級 이상인 者

1. 非專門秘書聯(stenographer) 3級 이상인 者

1. 國家 또는 公共團體의 速記業務에 從事하는 者

1. 其他 委員會의 推薦에 의해서 理事會의 承認을 얻은 者

第9條(會員의 懲戒) ①會員中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가 發生한 때에는 委員會는 會員의 懲戒事項을 審査하여 理事會에 報告한다.

1. 協會의 事業을 妨害하거나 害를 끼칠 때

1. 協會의 名譽를 毀損하거나 會員相互間에 不信을 招來케 한 때

1. 會費를 3月이상 納付하지 아니한 때

1. 其他 協會定款 第6條의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

②前項의懲戒의種類는 다음과 같다.

1. 除名
2. 譴責
3. 資格停止

第4章 速記士資格檢定試驗

第10條(目的) 速記의 社會的 役割의 重要性에 비추어 그 機能을 충분히 하게 하기 위하여 그 基準을 定하고 速記士 資格檢定試驗(이하 “檢定試驗”이라 한다)을 實施하여 그 基準에 相應하는 能力을 認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11條(應試資格) 速記術을 研修한 者로 한다.

第12條(種目 및 基準) 國語速記와 英語速記로 區分하고, 國語速記는 1級~8級, 英語速記는 非專門秘書職(stenographer) 1級~4級, 專門職(reporter) 1級~4級으로 한다. 그 內容은 別表 ①과 같다.

第13條(檢定方法) ①國語速記 1級~3級은 演說體(1次), 論說體(2次), 各 5分 4級~8級은 演說體(1次), 論說體(2次) 各 3分을 實施한다.

②英語速記의 非專門秘書職(stenographer)은 商業英語(1, 2次)를 各 3分 實施하고, 專門職(reporter)은 商業英語(1次), 時事英語(2次)를 各 5分씩 實施한다.

③前 ①②項의 讀文時間은 朗讀時間의 15倍 이니로 한다.

④檢定試驗은 朗讀을 原則으로 하고 必要한 때에는 錄音으로 代替할 수 있다.

第14條(試驗施行 및 公告) 檢定試驗은 年 1회이상 施行하여야 하고 試驗施行 10日前에 公告하여 一般이 알 수 있게 하

여야 한다.

但, 필요시 特別資格檢定試驗을 施行할 수 있다. 이 경우 公告를 하지 않을 수 있다.

第15條(提出書類) 檢定試驗에 應試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具備하여 提出하여야 한다.

1. 檢定應試願書(所定) 1通
2. 寫眞(반명합판) 2枚

第16條(檢定試驗委員) 檢定試驗을 實施하기 위하여 必要한 出題·朗讀·監督 및 採點委員은 委員長이 任命 또는 委囑하여 構成한다.

第17條(採點基準) 別表 ②에 의한다.

第18條(合格決定) 國語·英語 各級에 있어서 合格者는 1次·2次 各 100點 滿點에 平均 90點 이상인 者로 한다.

第19條(合格者公告 및 合格證書交付) 委員長은 合格者가 決定되었을 때에는 이를 公告하고 合格者에게는 合格證書를 交付한다.

第20條(資格證交付) ①合格者에게는 本人의 申請에 따라 資格證을 發給한다.

②資格證의 發給을 받고자 하는 者는 手數料로 1枚當 500원을 納付하여야 한다.

第21條(不正行爲) 檢定試驗에 있어서 不正한 行爲를 하거나 試驗에 관한 規定에 違反한 應試者에 대하여는 그 者에 대한 試驗을 停止하거나 無效로 한다.

第22條(檢定手數料) ①檢定試驗應試者는 國語速記는 1, 2級 2,000원, 3級~8級 1,000원, 英語速記는 各級 共히 3,000원을 手數料로 納付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手數料는 應試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還給하지 아니한다.

第23條(手當支給) 第16條의 檢定試驗委員에 대하여는 豫算의 範圍 안에서 手當을支給한다.

第24條(委任規定) 이 規程施行에 필요한 事項은 委員長이 따로 定한다.

附 則

이 規程은 理事會의 承認을 얻은 날로 부터 施行한다.

附 則

이 規程은 1971年 7月 6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① 1973年 4月 10日 현재 正會員으로서 國家 또는 公共團體의 速記職에서 滿 5年이 상의 實務經歷을 가진 者는 資格審査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1級 速記士資格證을 授與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은 1973年 6月 30日까지 有效하다.

③이 規程은 1973年 4月 7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이 規程은 1974年 10月 11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이 規程은 1978年 2月 18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이 規程은 1978年 12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이 規程은 1979年 4月 23日부터 施行한다.

別表 ①

국 어 속 기				
연설체(1次)			논설체(2次)	
급수	속도(1분)	번문 시간	속도(1분)	번문 시간
1	320자 이상	15배 이내	290자 이상	15배 이내
2	300 "		270 "	
3	270 "		240 "	
4	240 "		210 "	
5	210 "		180 "	
6	180 "		150 "	
7	150 "		130 "	
8	120 "		100 "	

영 어 속 기				
비전문비서직 (stenographer)			전문직(reporter)	
급수	속도(1분)	번문 시간	속도(1분)	번문 시간
1	120 단어 이상	15배 이내	250 단어 이상	15배 이내
2	100 "		200 "	
3	80 "		180 "	
4	60 "		150 "	

別表 ②

- 오자, 탈자는 매 1자에 실점 1자로 계산하고
- 첨자는 매 3자에 실점 1자로 계산하여
- 만점을 100으로 하고 실점자수의 합계가 전체 낭독자수의 100분의 몇에 해당하는가 계산하여 그 숫자를 뺀 나머지 숫자를 득점으로 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한다.
- 기타 세부적인 재검기준은 따로 정한다.

會 務 日 誌

78. 12. 4 第95次 理事會
12. 15 速記界 第19號 發刊
12. 22 第12回 定期總會(場所：國會 146號 會議室)
1. 1978年度決算承認 및 監查報告
 2. 1979年度事業計劃(案) 및 豫算(案) 承認
 3. 任員改選
12. 26 第96次 理事會
- 擔當部署決定
- 第24回 冬季講習의 件
12. 29 第97次 理事會
79. 1. 11 第24回 冬季講習開講
- 受講人員：國語 481名, 英語 253名
1. 28 法人定期報告書提出(文化公報部)
1. 31 第24回 冬季講習修了
- 修了人員：國語 302名, 英語 145名
2. 6 第98次 理事會
4. 30 第99次 理事會
- 資格審査規程中改正(案)承認
- 第16回 全國速記士資格檢定試驗實施의 件
79. 6. 11 第9回 全國速記人體育大會
- 場所：韓國道路公社球場
- 參加人員：245名
- 綜合優勝：青龍팀
6. 25 第100次 理事會
6. 27 第1回 特別資格檢定試驗實施
7. 13 第101次 理事會
7. 23 第25回 夏季講習開講
- 受講人員：國語 188名, 英語 114名
79. 8. 11 第25回 夏季講習修了
- 修了人員：國語 139名 英語 66名
8. 29 第102次 理事會

編輯後記

한해를 또 보내면서 그보다 70年代의 큰 章을 담으면서 세월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線이 술한 點의 연결이듯이 歲月이 무수한 瞬間의 연속일진대 어찌 分秒를 가버이 할 수 있으랴. 이 순간의 연속이 개인에게는 一生이 되어 哀歡이 교차되고 나라에는 歷史가 되어 榮辱이 어우러지니 시간의 흐름이 진실로 엄숙할 뿐이다.

이제 80年代의 찬란한 太陽이 뜨는 새해에도 速記界의 발전과 會員諸位의 萬事亨通을 기원한다.

— 良 —

速記界

<第 20 號>

1979年 12月 25日 發行

發行人 金 龍 泰

編輯人 河 良 培

社團 大韓速記協會
法人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汝矣島洞 1-1

Tel 7802-2471~6

<非賣品>

學 院 案 內

♣ 創立 30 周年!

- ◇ 우리나라 最古의 速記士私設養成所
- ◇ 社団法人 大韓速記協會指定養成機關

한글速記科

- 1. 本 科…………… 4 個月
- 1. 研修科…………… 1 年
- 1. 資 格…………… 高卒以上

英文速記科

- 1. 本 科…………… 3 個月
- 1. 研修科…………… 6 個月
- 1. 資 格…………… 高卒以上

修了後

國會, 法院, 各官公署, 各言論機關, 各軍速記兵, 外國人商事, 留學時的筆記 및 알바이트 等 高級就職으로 社會 進出 容易

官認 東邦速記學院 TEL. (261) 4 2 6 6

學 院 案 內

한글速記科

- 1. 本 科…………… 3 個月
- 1. 研修科…………… 9 個月
- 1. 資 格…………… 高卒以上

英文速記科

- 1. 本 科…………… 2 個月
- 1. 研修科…………… 4 個月
- 1. 資 格…………… 高卒以上

修了後

國會, 官公署, 通信社, 大使館, 外國銀行, 外國人商事, 移民, 留學, 高級秘書 等

官認 高麗速記學院 TEL. (72) 3 6 7 2

(종로 2 가 Y M C A 열 장안빌딩 4 층)